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한국 주거문화의 ‘남향 이데올로기’

- 기원과 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he South-Facing Ideology in Korean Housing Culture

- Critical Study of origins and Formation -

○문 한 솔*

Moon, Hanso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formation of Korea's strong preference for south-facing housing. While traditional dwellings reflected flexible orientations shaped by geography and climate, the colonial period introduced grid-based urban block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urban hanok', which gradually established the southern orientation as a desirable housing principle. After the Korean War, apartment policies, sunlight regulations, and standardized design practices institutionalized south-facing layouts as the dominant norm. In this process, southern orientation came to symbolize modernity, comfort, and status, while non-south orientations were perceived as less desirable. The paper argues that Korea's south-facing preference is not merely a matter of climatic but a socially constructed phenomenon.

키워드 : 남향 배치, 주거 이데올로기, 한국 아파트, 도시 주거문화

Keywords : South-Facing Orientation, Housing Ideology, Korean Apartments, Urban Housing Culture

1. 서론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 ‘남향(南向) 선호’는 관습적 규범에 가까운 정도로 강고한 현상이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는 “전 세대 남향 배치”나 “정남향 일자형 배치” 등이 단골 문구로 등장하고, 남향 여부가 주택의 가치와 선호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김윤희, 2006). 이러한 ‘남향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채광이나 난방의 실용적 이유를 넘어, 역사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강화된 문화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향 선호가 어떤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정당화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과 도시형 한옥의 등장, 근대화 과정에서의 아파트 중심 정책, 부동산 가치 논리 등이 남향 선호를 어떻게 공고한 규범으로 제도화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획일화된 도시 주거 경관을 성찰하고, 향후 남향 선호의 전복(顛覆) 가능성과 주거 문화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전통 주거의 남향에 대한 실증적 이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건축에서는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좌북남향(座北南向)’이 이상적인 입지로 거론

되며, 한옥 또한 햇볕이 잘 들고 북풍을 막기 위해 남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비·윤혜경·박현수, 2010). 실제로 조선시대 양택풍수에서도 집터의 남향을 길지(吉地)의 조건으로 삼았고, 안채를 남쪽 마당을 향해 배치하고 문간채는 동쪽에 두는 등 남향 위주의 배치가 권장되었다. 문화적 지속성으로서 ‘대문은 동쪽, 집은 남향 배치’가 전통 주거의 오랜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조용훈·손병남, 2006). 이러한 전통적 지향은 한반도의 기후조건 - 예컨대 겨울철 한랭한 북서풍과 추위 - 속에서 채광과 보온을 최대화하려는 실용적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양동마을(좌)과 하회마을(우)의 가옥 배치

그러나 남향 선호가 곧 전통주택의 획일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박인석·이광노(1988)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과 같은 남향 일변도의 선호와 달리 전통 한옥에는 가장 중요한 방인 안방을 비롯하여 남향이 아닌 방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전통 마을과 가옥들은 지형, 배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향을 띠었다. 예컨대 산간 지형에서는 남쪽보다 계곡을 향해 집을 틀거나, 남해안의 초가집들은 여름철 통풍을 위해 남동향으로 짓는 등 지역과 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학석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Gwangju University, hansolmoon@gwangju.ac.kr)

경에 따른 융통성이 있었다. 전통 한옥 배치에서 안채와 사랑채를 일직선 축에 엄격히 두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평행 또는 직각으로 어긋나게 두는 사례도 흔했으며, 이는 남향이 중시되면서도 주거 기능과 생활 내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김홍식·이해성, 1988). 다시 말해 전통사회에서의 남향 선호는 실용적 고려와 생활 양식의 산물이었으며, 현대와 같은 절대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3. 식민지 시기 도시형 한옥과 남향 이데올로기의 강화

일제강점기(1910~45)는 한국 주거문화에 큰 전환을 가져온 시기였다.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와 주택난 속에서, 식민지 당국과 민간 건설업자들은 도시형 한옥 또는 개량한옥이라 불리는 새로운 한옥 유형을 대거 공급하였다. 1930년대 경성의 도시계획은 종래의 불규칙한 도시조직을 직교 격자 가로망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필지들로 분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신축은 상품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우선시되었다. 민간 개발자들은 표준화된 평면의 한옥을 연립 형태로 지어 임대하거나 분양하였고, 주택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했다(박철진·전봉희, 2002).



그림 2. 안암동 도시형 한옥 밀집지역 (출처: 성북마을 아카이브)

도시형 한옥의 등장은 남향 선호를 새로운 방식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출현한 한옥들은 전통 한옥의 공간구성을 축소·변형하면서도, 채광과 위생을 중시한 근대적 주거관을 반영하려 했다. 예를 들어 도시형 한옥 설계에서는 대청 등 주요 공간을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고, 부엌은 북쪽 후면에 두는 등 남향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일조 확보와 통풍을 강조한 당시의 근대주택 담론과 전통적 기호가 합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와 민간 분할 개발의 결과 형성된 격자형 시가지 블록은 대체로 남북 장축을 이루어 주택 전면이 남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였다(오우근·서현, 2013). 이처럼 남향은 근대 도시계획 속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이용 효율성의 논리와 결합하여, 단순한 기후 적응을 넘어 제도적 규범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남향 배치를 충족한 집을 근대적 모범주택으로 칭송하게 만들었으며, 반대로 동향이나 서향 등 남향을 확보하지 못한 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로 인식되도록 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주택개선타본에는 채광과 위생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고, 이는 남향에 대한 가치를 근대적 과학의 언어로 정당화하는 배경

이 되었다(우동선, 2001). 요컨대, 식민지 시기에 등장한 도시형 한옥의 획일화된 정형화 과정은 남향 선호를 하나의 보편적 주거 규범으로 강화하는 양면성을 보인다. 결국 남향 선호는 단순한 설계 원칙을 넘어 근대 주거의 규범적 기준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향은 한국 주거문화 속에서 더욱 공고한 신념 체계로 자리잡게 되었다.

4. 남향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 일조권, 아파트 법규, 설계 관행 (1960~90년대)

해방 이후 특히 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은 남향 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확산·고착화한 결정적 계기였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의 설립과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 이후 정부는 대량의 아파트 단지(團地) 조성을 통해 주택 부족을 해소하고자 했고,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 아래 아파트는 근대화와 발전의 상징으로 장려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근대주거 모델이 일부 도입되었으나, 한국 아파트 단지는 곧 고유한 배치의 특성을 보였다. 이를테면 60~70년대 초기에 지어진 직사각형 판상형 아파트들은 독일 등의 1920년대 지들룽(Siedlung) 주택단지 양식을 본떠 일렬로 배치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결정적으로 모든 동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기후 조건과 전통적 주거 관념을 반영하였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는 도로망과 도시조직에 따라 동서 또는 남북으로 다양하게 배치되던 주거동이 한국에서는 “풍수적인 영향(geomantic influences)”으로 남쪽을 향하도록 각도가 조정되었던 것이다(M. Brossa, 2016). 이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남향 일조 확보를 우선적인 가치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0년대 이후 남향 선호는 다양한 법규와 설계 기준을 통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 80년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 일조권 개념이 반영되어,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동지(冬至)일 기준 일정 시간 이상 일조가 들도록 동 간 거리를 확보하고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예컨대 동지 일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를 권장하는 기준 등이 제시되어, 설계자는 자연스럽게 동 배치를 남향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에서는 세대의 주요 거실에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하여, 전체 세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남향 또는 이에 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남향 배치가 거주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다는 당위와 주택 상품의 가치 제고 전략이 맞물려 있었다.

공급자 측면에서 표준화된 설계도의 활용 역시 남향 일변도의 아파트 단지를 낳은 주요 원인이었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는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표준평면 및 표준동 설계를 전국에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전국 단일 표준설계는 지역이나 대지 여건을 막론하고 남향의 일차형 주동을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은경(1993)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공급된 대부분의 아파트가 미리 준비된 표준 단위주호·주동 도서를 현장에 맞게 배치하는 방

식으로 지어졌고, 이는 획일화된 남향 판상형 아파트가 양산된 직접적 요인이었다. 더구나 정부의 양적 주택 공급 기조하에서 개별 설계의 다양성은 부차적인 고려에 머물렀고, 경제성과 공기(工期)가 중시되면서 변형 없이 반복이 가능한 남향 구조가 선호되었다.



그림 3. 남향 일변도의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 뉴스웍스)

한편, 소비자들의 인식과 시장 논리 또한 남향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주동력이었다. 한국의 기후와 관습적 경험에 누적되어 남향을 선호하는 주거 요구가 형성되었고, 이는 주택의 분양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남향으로 배치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여 분양 실적이 좋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남향 일변도로 계획하는 관행을 고착시켰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아파트 광고와 분양 카탈로그에는 일조와 통풍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전세대 정남향 배치”를 경쟁적으로 내세웠다(김윤희, 2006). 소비자들도 주택을 자산 가치로 여기는 인식 속에서 남향 여부를 중시하였는데, 남향집은 곧 높은 재산 가치와 연결되고 북향이나 편향된 집은 기피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렇듯 정책 입안자, 공급자, 수요자 3측의 인식이 남향 일색의 주거공간을 당연시하게 되면서, 남향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공식처럼 한국 주택문화를 지배하게 되었다.

5. 획일화된 도시경관과 대안적 향 배치 가능성

남향 일변도의 주택 공급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한국 도시경관의 획일화를 초래하였다. 도시 곳곳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군대 막사처럼 동일한 방향과 형태로 늘어선 장면을 연출하며, 이러한 단조로운 판상형 아파트의 모습은 한국 풍경의 지배적 이미지가 되었다. 주거동이 모두 남향으로 향하면서 도시의 가로망과 맥락보다는 일조각이 우선된 결과, 도시 조직은 파편화되고 스카이라인은 단조롭게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조망권 제한, 프라이버시 문제 등도 획일적 배치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향 일렬 배치를 취한 단지는 앞동과 뒷동이 일직선으로 겹쳐 배치되면서 하층부의 조망을 가로막고, 단지 외부에서는 거대한 장벽 경관을 만들어낸다. 또한 모든 동을 남향으로 두는 경우 대지 활용의 탄력성이 떨어져, 부지의 형태나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지는 단점이 있다. 주거 쾌적성 면에서도, 남향에 치우친 설계는 여

름철 직사광 과열 문제나 동·서향 면의 통풍 불리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한동안 주택 부족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주택 보급률 향상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 증대로, 획일화된 남향 배치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건축계 일각에서는 40년 가까이 관습처럼 반복되어 온 주거동 남향 일자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창의적인 배치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박은영, 2001). 특히 2000년대 들어 몇몇 선도적인 설계안들은 남향 위주의 배열에서 탈피한 다양한 형태의 단지 계획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주동의 다양한 배치 형태의 등장이다. 전통적인 획일적 일자형 배치에서 벗어나 ‘ㄱ’자형, ‘ㄷ’자형, ‘ㄴ’자형 등의 자유형 배치가 도입되면서, 하나의 단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주동들이 공존하는 구조가 늘었다. 이러한 배치 방식은 단순히 일조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기후와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길’ 확보와 조망을 극대화하려 하였다. 또한 단지 중앙에 오픈스페이스를 두고 주동들을 주변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증진시키는 계획도 나타났다. 이 경우 모든 주동이 정남향은 아니지만 각 주동이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균형을 누리도록 설계되었고, 단지 내부 경관도 보다 입체적이고 변화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시도들은 일조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계획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지역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단지 계획의 가능성을 제시했다(서지은·박은정, 2006).

국제 비교의 시각에서도 남향 일변도의 배치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비·윤혜경·박현수(2010)의 한중 공동주택 비교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단위평면은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향의 장방형 평면으로 발달한 반면, 상하이의 공동주택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하는 전통적 공간구성 원리를 따라 세장형 평면으로 진화했다. 서울의 장방형 구조가 겨울철 일조량 확보라는 기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과 달리, 상하이 평면의 세장형 형태는 기후적 요인보다는 사합원과 이농주택에서 좌우대칭 공간배치와 공적-사적공간 분리라는 전통적 공간구성 원리가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양비·윤혜경·박현수, 2010) 이처럼 유사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도 기후와 생활양식에 따라 주택의 형과 형태가 다르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향 선호는 보편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한국 사회 특정 맥락의 산물임을 국제 비교가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주거문화에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즉, 남향 일색의 배치가 아닌 대안적 배치도 충분한 거주·쾌적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맥락에 따라서는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이 남향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후변화로 118년만의 폭염을 맞으면서 햇빛이 잘 드는 ‘남향’ 주택보다 ‘북향’ 집을 선택하는 이들이 등장했고, 한국 역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잦아지면서 냉방 부담이 적은 북향이나 동향 공간

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변휘·이영민, 2025). 패시브 건축 기술의 발달로 단열성과 차양 성능이 향상되어 남향 배치 없이도 열효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역시 다양한 방향에서의 일사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거 향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고 있다. 결국 현대에 들어 거주자 요구의 다원화(多元化)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남향 이데올로기는 서서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주거 배치의 다양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박은영, 2001).

6. 결론 - 남향 선호의 전복 가능성과 주거문화의 전환

남향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근·현대 주거사를 관통해온 강력한 담론이자 관행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거의 실용적 남향 지향이 일제강점기의 도시 주택 보급 과정과 근대적 위생 담론을 거치며 문화적 신념 체계로 강화되고, 해방 후 급속한 아파트 공급 체계 아래 제도적·산업적 논리와 결합하여 극대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남향 선호는 한편으로 한국 주거의 기후적 합리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획일화된 공간 생산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도시 주거 경관의 단조로움과 경직성을 초래하였다. 이는 주거문화의 풍부한 가능성을 제약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영구불변하지 않다. 남향 선호 역시 그 기원이 역사적 산물인 이상, 사회적 인식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전복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 오늘날 주거의 목표는 더 이상 획일적 물량 공급이 아니라 질적 다양성과 개별적 삶의 가치 실현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남향 일변도의 선호에 균열이 생기고, 주거 다양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1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서로 다른 생활패턴을 가진 주거자들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공간 요구를 지니며, 모든 이에게 남향만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소비자의 가치관도 변화하여, 전망이나 접근성, 내부 평면의 개성 등 남향 여부 이외의 요소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에게도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즉, 태양에 대한 수동적 추종이 아니라, 향과 일조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여 부지와 맥락에 맞는 최적의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남향이 아니라도 쾌적성과 에너지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기법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한국적 주거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거문화의 남향 이데올로기는 그 기원과 강화 과정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재전유(再專有)될 시점에 이르렀다. 남향 선호를 맹목적 전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역과 개인의 다름을 수용하는 개방적 주거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곧 남향 위주의 획일화된 도시경관을 탈피하여, 다채롭고 인간 중심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남향 이데올로기의 전복은 전통과 현대를 관

통해 온 주거문화를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끄는 과정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주택이 단순한 태양 지향의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 삶의 질과 문화적 표현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데 있다. 앞으로의 주거정책과 설계 담론이 이러한 방향 전환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인의 주거문화는 단일한 남향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윤희(2006).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타난 계획요소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육대학원.
2. 김홍식, 이해성(1998). 양택론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간접이 방식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5호, 129-137.
3. 박은영(2001). *배치의 변용을 통한 집합주거 디자인*, 석사학위논문, 건국대건축전문대학원.
4. 박인석, 이광노(1988). 전통주택의 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8권 제1호, 221-224.
5. 박철진, 전봉희(2002).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평면계획의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제7호, 95-106.
6. 서지은, 박의정(2006). 지역성을 고려한 주거단지계획의 특성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권 3호, 31-40.
7. 안은경(1993). *획일화된 아파트유형의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대학원.
8. 양비, 윤혜경, 박현수(2010). 한·중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요인을 통한 단위평면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2호, 136-143.
9. 오우근, 서현(2013). 도시형한옥 주거지의 블록구획과 주거평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2권 3호, 7-14.
10. 우동선(2001). 과학운동과의 관련에서 본 박길룡의 주택개량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7권 제5호, 81-88.
11. 조용훈, 손병남(2006). 한국 도시대중주택의 변화 및 도시·건축적 과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11호, 69-80.
12. M. Brossa(2015), Legacies of the South Korean Mass Housing Project, *ZARCH*, no.5, 86-107.
13. 변휘, 이영민, ““남향집 너무 더워”...40도 넘는 역대급 폭염, 일본 집 선호도 바뀐다”, 머니투데이, 2025.08.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2717165489373>